



## 25세를 뛰는 사람들

똥다! 25세의 사람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뛰어간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뜨거운 땀이 났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먹을것,  
입을것, 살곳 등등. 과연  
우리네 삶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파스칼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 찌들어 이제  
마주보기조차 거부하려 든다.  
25세를 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가꾸어 온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주보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라명과 에디아르 오전 10시!  
이강주(37) 대리는 공장 안에서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공  
장 입구에서 그를 불러 보았지만 일에 열중하고 있는 탓인지  
못 알아본 것 같았다. 그리 넓지 않은 공장 안, 신선한 빵을  
매장 진열대에 올려놓기 위해 후배 기술자들과 구슬땀을 흘  
리고 있었다.

1959년 12월 21일 충남 조치원 태생, 태어나자마자 상  
경, 전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

그는 학교를 마친후 2년동안 오토바이 부품업을 하시던 아  
버지의 사업을 돕는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과 아버지의 권유에 당시 전망이 밝았던 베이커리 업계  
의 문을 두드려 본다. 그의 나이 27세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신라명파에 입사원서를 내는 것으로 제빵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 먹거리 문화와 인연이 깊었던 그의 집안 내력

그는 그곳에서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당시 그의 직장  
선배들은 “대학까지 나와서 뭐하러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  
냐”며 충고하였단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만  
확고하다면 그깟 어려움 쪼미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당시의 근무 여건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  
기 때문에 그는 입사후 4년이 지나서야 정식 사원 발령을 받  
는다. 그때의 월급이란 것이 일당 5,500원, 한달에 고작  
165,000원 이었다. -

그의 집안은 먹거리 문화와 인연이 깊다. 유명 요리 연구가  
하선정·하숙정 씨가 그의 사촌 이모님이기도 하다. 그런 집

안 분위기 탓에 대학 전공도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이다.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고 이제 빵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  
히나 제빵일은 장인정신이 필요한 직업이죠. 바로 그점이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빵만드는 일이 저의 삶이 되어  
버렸죠.”

과연 프로다운 그의 말이다. 인간에게 완성 혹은 완벽이라  
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며  
자신의 삶이란 여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개척해 나갈 뿐이다.

## “용연아! 너 빵만들어 볼래?”

그는 이곳 에디아르 창단멤버이기도 하다. 그전엔 그랜드  
백화점, 천호동, 영등포 신세계 등 신라명파의 여러 매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기도 했다.

에디아르는 프랑스와 합작해서 설립된 즉석빵 전문 매장이  
다. 오픈한지는 이미 5년되었고, 그가 신라명파에 근무한지  
는 약 11년 되었으니 그가 신라명파에 입사후 거의 2분의 1  
을 줄곧 에디아르에서 근무한 셈이다.

그가 신라명파에서 하는 일은 기술지도와 매장관리이다.  
그가 소속된 부서도 ‘외장관리과’란다. 그는 자신을 본사에서  
서 파견 나온 생산직 사원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하루 일과는 9시에 출근해서 2시까지 신세계본점 에  
디아르에서 근무하고, 이후 시간은 경인지역 20개 매장을 순  
회하며 관리와 기술지도를 병행한다. 또한 일주일에 두차례  
정도 본사 생산 간부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각 매  
장 현황을 보고한다.

그가 하는 일이란 것이 여간 꼼꼼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같은 매장에서 오랫동안 그와 함께 근무한 한 직장동료는 “대  
리님은 여성처럼 섬세한 성격을 가지셨어요. 그분의 손을 보면  
언제나 깨끗하죠. 무척 깔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웃음도 많으시구요”라고 한다.

그는 신제품 연구와 기술습득을 위해 각종 세미나에 참석  
한다든지, 외국 기술 서적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얼마 전에는 벨기에에 소재한 제과 원부재료 업체인 퓨라토  
스社에서 개량제에 대한 연수를 받았고, 일본 에디아르를 방  
문해 기술연수를 받는다. 또한 신라명파 간부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연수 과정에 매주 수요



하나, 사랑 둘 그리고 마주보기

(주)신라명파

이강주



일마다 참여한다. 제과인으로서 자신의 안목과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그의 발걸음은 모터 돌아가듯 바빠 움직인다.

한나라의 문화를 파악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그 나라의 문화는 결국 언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로 일본 베이커리 업계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로서도 일본에 관한 기초지식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일본어 공부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거의 3년을 일본어학원 새벽반을 수강한다.

성실함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다.

“베이커리 업이 3D업종이라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일에 종사하는 젊은 친구들의 적당주의적 사고방식이 간혹 눈에 보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프랑스 기술인이 있어요. 그를 보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그를 바탕으로 제빵기술에 관한 책을 출판한다든가, 자신이 ‘장인’ (유럽에서는 이를 마이스터라고 한다)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죠. 이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베이커리업계의 정보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의 말대로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제과인들도 이를 직시해야 한다. 외국 유통업체만 해도 그들이 축적해 온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로 시장선점에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터넷이 아니라도 하이텔이나 천리안, 나우누리 등, 우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보의 상호교환을 구축할 수 있다. 매장관리나 점포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POS(판매시점 관리), LAN(컴퓨터 네트워크) 등이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올해 유럽빵을 둘러본 그는 유럽 베이커리 업계의 기계화, 자동화된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손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 제품조차 기계를 통해 정교하게 제작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 양산메이커를 비롯한 베이커리업계의 전반적인 자동화를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88년 1월에 결혼했다. 그에게는 현재, 국민학교 2학년인 딸과 올해 5살된 아들 용현이가 있다. 한번은 핏지락거리며 놀고있는 용현이에게 “용현아! 너 빵만들어 볼래?” 하며 물었더니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 용현이가 제과

인의 길을 걷는다 해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다.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두남매는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 ‘신명회’ 활동을 통해 사랑나누기 실천

신라명파에있는 사원 동아리 중에 ‘신명회’라는 모임이 있다. 외장관리과 직원들과 영업부 여직원간의 일체감 조성과 협력도모의 일환으로 94년 5월 27일 발족한 봉사 동아리이다. 신명회의 주요 활동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시설 등 여건이 영세한 고아원을 방문하여 노력봉사를 하는 것이다. 현재 신명회 회원수는 30여명 정도이다.


주로 행주만들기, 점심식사준비, 빨래하기, 목욕시키기, 청소하기, 집안 손질 및 수선하기, 학습지도 등이 활동 내용이다. 우선 1차로 방문한 곳이 월간베이커리에도 소개된 사당동 ‘사랑손’이었다. ‘사랑손’은 무의탁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안식처이다. 그는 94년 8월 ‘사랑손’을 방문하여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매일 첫째 목요일 매장이 쉬는날, 신명회 회원들과 함께 ‘사랑손’을 방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다. 회원들이 낸 작은 정성으로 비용을 충당하며, 올해 3월부터는 회사직원이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귀땀해 준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누구에게 과시하려고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이를 돕다 보면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찌들었을 때, 삶이 고달팠 때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어주죠. 또한 정신 장애인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한 속에서 천사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곤합니다. 전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찾아온 그날도 한 고아원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는 기자의 동행을 한사코 만류했지만 끝까지 동행, 취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날 찾은 곳은 상도동에 위치한 청송보육원이었다. 그곳은 청송종합복지원에 소속된 곳으로 청송자립생활관과 함께 있었다.

그곳 부원장의 설명을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청취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뛰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물질적 도움보다는 정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원장의 간곡한 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아들에 대한 선입견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그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나 고난, 행동의 옳고 그름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고아하면 우리는 무조건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저 도와려고만 한다. 그들에게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운동장에 나오자 따사로운 봄햇살이 보육원 앞마당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장난치고 있는 한 아이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취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소신껏 걷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이강주 씨. 각박하고 혼란스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될 듯 싶다. 

(글/강영주)

